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여부가 구강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하정은¹ · 김수빈² · 김수진² · 서은지² · 이지영² · 정여진² · 김민지^{2*}
¹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 ²동서대학교 치위생학과

A Study on the Impact of Relationship on the Oral Health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Ha Jungeun, Ph.D1 · Kim Subin² · Kim Sujin² · Seo Eunji² · Lee Jiyoun²
Jeong Yeojin² · Kim Minji, Ph.D^{2*}

¹*Dept. of Dental Hygiene, Division of Health Science, Baekseok University*

²*Dept. of Dental Hygiene, Division of Health Sciences, Dongseo University*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the effects of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on the oral health were affected by the increased interest in the appearance.

Methods : After explanation of this study, we conducted the questionnaire to those who accepted questionnaire from April 26 to May 28, 2017. In order to collect the data, Naver-form (mobil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the research subjects and the collected data. The analysis technique used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the status of the relationship. Chi-square test was used to examine the number of toothbrushes, toothbrushing time, oral health concern, regular oral examination and scaling, use of oral care products, smoking status, and bad breath.

Result : Among the total of 190 research subjects, 79 (41.6 %) were male and 111 (58.4 %) were female. The presence of brushing just before going out and carrying a toothbrush were more frequent for those subjects who are in relationship ($p < .001$). The subjects who considered oral hygiene to be important were higher in those who were in relationship ($p < .001$).

Conclusion : Some oral health care behaviors such as toothbrushing just before going out or carrying a toothbrush were well formed, and oral hygiene was important in those who were in relationship.

Key Words : oral health behaviors, relationship

*교신저자: 김민지, icealsw12@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대학생은 후기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속하며 인생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불안정한 인생의 변화기이고, 학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 등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박은희, 2015). 이 시기에는 독립심을 기르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부모나 교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로 그들의 생활양식을 만들어가며, 이성교제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대학생의 이성교제는 점점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성의 선택조건 중 외모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정미경, 2004), 이성교제를 통하여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요즘의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취업과 연애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한다(조은정, 2014).

이처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를 추구하고 누구나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기에 날이 갈수록 외모의 중요성은 커져만 가고 있으며, 외모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내용보다 먼저 나 자신을 보여주고 서로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고육재, 2007).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가 성공과 행복지수를 높이며 더 사교적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자 얼굴 및 신체, 옷차림, 헤어, 피부, 치아 등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능동적 삶을 살아가고,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신감 있게 발휘할 수 있게 된다(박주현, 2010; 전종국, 2008). ‘외모’란 걸음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외모 관리는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그리고 치아관리(교정, 치아미백, 스케일링), 턱 관절 수술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된다(김효정 등, 2015). 따

라서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고, 외모관리 요소 중 ‘치아관리’란 구강위생 및 구강건강관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구강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치아우식증 및 외인성 착색으로 인하여 심미성이 저하될 수 있고, 구취로 인해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 발달 단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이성교제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성교제 여부를 확인하고, 이성교제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동 및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구강청결중요도, 구강건강에 대한 사고를 조사하여, 인구특성상 큰 집단에 속하고 구강진료이용의 주체자이자 의존자(정기천 등, 2003)인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적절한 구강건강지식, 태도,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하고, 그에 맞는 구강건강증진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일부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성교제 여부를 조사하여 치아우식증과 구취의 기본적인 예방법인 잇솔질 행태를 비롯한 구강건강관리행동을 조사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시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 이성교제 여부가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구강건강에 대한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무작위 편의 표본 추출하였다.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있는 대상자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90명을 최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평가

자료의 수집은 조사대상자에게 네이버 폼(모바일)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성교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조사대상의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잇솔질 횟수와 잇솔질 시간, 구강건강 관심정도와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유무, 구강관리용품 사용과 흡연 유무 및 구취고민 유무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로 선정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는 전체 190명으로 남성이 79명(41.6%), 여성이 111명(58.4%)이었고, 연령분포는 20~22세 62명(32.6%), 23~26세 103명(54.2%), 27~29세 25명(13.2%)이었다.

이성교제 여부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84명(44.2%),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06명(55.8%)이었다(표 1).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N=190)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79	41.6
	여자	111	58.4
연령	20~22세	62	32.6
	23~26세	103	54.2
	27~29세	25	13.2
이성교제 유무	예	84	44.2
	아니오	106	55.8

2. 연구대상자의 이성교제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동

연구대상자의 이성교제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동은 표 2와 같다.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는 외출 직전 잇솔질을 ‘시행함’이 83.3%, 이성교제 중이 아닌 대상자는 27.4%로 이성교제를 하는 대상자가 외출 직전 잇솔질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가 칫솔을 ‘휴대한다’ 53.6%에 비해, 이성교제 중

이 아닌 대상자는 22.6%로 조사되었다($p<.001$).

구강관리용품 사용률은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는 45.2%로 나타난 것에 비해, 이성교제 중이 아닌 대상자는 39.6%로 나타나,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사용률이 더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p>.05$).

또한 현재 흡연상태는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에서 흡연 중인 대상자가 26.2%, 이성교제 중이 아닌 대상자는 30.2%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표 2. 이성교제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동

[단위: 명(%)]

구분	구분	전체	이성교제 상태		p*
			예	아니오	
잇솔질 횟수	1회	8(4.2)	4(4.8)	4(3.8)	0.551
	2회	77(40.5)	35(41.7)	42(39.6)	
	3회	70(39.8)	34(40.5)	36(34.0)	
	4회	23(12.1)	7(8.3)	16(15.1)	
	5회 이상	12(6.3)	4(4.8)	8(7.5)	
잇솔질 시간	1분	17(8.9)	6(7.1)	11(10.4)	0.365
	2분	69(36.3)	36(42.9)	33(31.1)	
	3분	74(38.9)	31(36.9)	43(40.6)	
	4분 이상	30(15.8)	11(13.1)	19(17.9)	
외출 직전 잇솔질	시행함	99(52.1)	70(83.3)	29(27.4)	<.001
	시행하지 않음	91(47.9)	14(16.7)	77(72.6)	
칫솔 휴대 여부	휴대함	69(36.3)	45(53.6)	24(22.6)	<.001
	휴대안함	121(63.7)	39(46.4)	82(77.4)	
구강관리용품사용	사용함	80(42.1)	38(45.2)	42(39.6)	0.436
	사용안함	110(57.9)	46(54.8)	64(60.4)	
흡연 유무	흡연중	54(28.4)	22(26.2)	32(30.2)	0.544
	흡연하지 않음	136(71.6)	62(73.8)	74(69.8)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함

3. 연구대상자의 이성교제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사용

연구대상자의 이성교제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사용은 표 3과 같다. 칫솔 사용은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에서 23.8 %, 이성교제 중이 아닌 대상자는 17.9 %이었고, 혀

클리너 사용은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에서 15.5 %, 이성교제 중이 아닌 대상자는 16.0 %이었다. 치간 칫솔 사용은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에서 14.3 %, 이성교제 중이 아닌 대상자는 10.4 %이었으나, 이성교제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사용률의 차이는 용품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이성교제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사용

[단위: 명(%)]

구분	구분	전체	이성교제 유무		p*
			한다	하지 않는다	
칫솔 사용	예	39(20.5)	20(23.8)	19(17.9)	0.319
	아니오	151(79.5)	64(76.2)	87(82.1)	
혀클리너 사용	예	30(15.8)	13(15.5)	17(16.0)	0.916
	아니오	160(84.2)	71(84.5)	89(84.0)	
치간칫솔 사용	예	23(12.1)	12(14.3)	11(10.4)	0.412
	아니오	167(87.9)	72(85.7)	95(89.6)	
구강양치액 사용	예	42(22.1)	21(25.0)	21(19.8)	0.392
	아니오	148(77.9)	63(75.0)	85(80.2)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함

4. 연구대상자의 이성교제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행태

연구대상자의 이성교제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행태는 표 4와 같이,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의 정기적인 구강검진 수검률은 33.3 %로 나타났으나, 이성교제 중이 아닌

대상자는 24.5 %이었다. 또한, 정기적인 스케일링 을 추진하는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는 46.4 %, 이성교제 중이 아닌 대상자는 34.9 %로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의 치과의료 이용행태가 더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4. 이성교제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행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이성교제 유무		p*	
		한다	하지 않는다		
정기적인 치과검진	시행함 시행하지 않음	54(28.4) 80(75.5)	28(33.3) 56(66.7)	26(24.5) 80(75.5)	0.181
정기적인 스케일링	시행함 시행하지 않음	76(40.0) 114(60.0)	39(46.4) 45(53.6)	37(34.9) 69(65.1)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한

5. 연구대상자의 이성교제에 따른 구강건강 관심도 및 구강청결 중요도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은 ‘매우 많음’이 11.9 %, ‘많음’이 33.3 %, 보통이 40.5 %이었으며, 이성교제 중이 아닌 대상자는 ‘매우 많음’이 9.4 %, ‘많음’이 27.4 %, 보통이 51.9 %이었다(p>.05).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의 구강청결 중요도는 ‘매우 중요’가 33.3 %, ‘중요’가 53.6 %, ‘보통’이 13.1 %이었으며, 이성교제 중이 아닌 대상자는 ‘매우 중요’가 12.3 %, ‘중요’가 62.3 %, ‘보통’이 25.5 %로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가 구강청결에 대하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01)(표 5).

표 5. 이성교제에 따른 구강건강 관심도 및 구강청결 중요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이성교제 유무		p*	
		한다	하지 않는다		
구강건강 관심도	매우 많음	20(10.5)	10(11.9)	10(9.4)	0.204
	많음	57(30.0)	28(33.3)	29(27.4)	
	보통	89(46.8)	34(40.5)	55(51.9)	
	적음	21(11.1)	9(10.7)	12(11.3)	
구강청결 중요도	매우 적음	3(1.6)	3(3.6)	0(0.0)	0.001
	매우 중요	41(21.6)	28(33.3)	13(12.3)	
	중요	111(58.4)	45(53.6)	66(62.3)	
	보통	38(20.0)	11(13.1)	27(25.5)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한

IV. 고 찰

대학생은 성인기의 구강보건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미래에 사회진출과 한 가정을 이루는 역할을 하므로,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행위와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현옥 등, 2014).

이에 본 연구는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여부를 조사하여 구강건강행위와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적절한 구강건강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자,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동 및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및 구강청결중요도 및 구강건강에 대한 사고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무작위 표본 추출한 일부 대학생 190명 중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는 84명(44.2%), 이성교제 중이 아닌 대상자는 106명(55.8%)이었다. 이는 2007년 조사 대상자, 192명 중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는 72명(37.5%)에 비해(이경희 등, 2007) 이성교제 중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 연구에서의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구강위생상태는 잇솔질 횟수, 잇솔질 시간, 간이구강환경지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경희 등, 2007). 본 연구에서도 이전 연구와 같이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잇솔질 횟수, 잇솔질 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외출 직전 잇솔질 유무는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는 ‘한다’가 83.3%, 이성교제 중이 아닌 대상자는 ‘하지 않는다’가 72.6%로 이성교제를 하는 대상자가 외출 직전 잇솔질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칫솔 휴대 여부도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가 ‘휴대한다’ 53.6%,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 대상자가 ‘휴대하지 않는다’ 77.4%로 조사되었다. 대학생의 44.6%의 칫솔을 휴대하는 것에 비해(이선미 등, 2016), 본 연구에서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가 53.6% 휴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성교제를 하는 대상자에게서 보통 대학생들에 비해 칫솔을 더 많이 휴대하며, ‘외모’에 관심을 더 가지고, 외출 직전 잇솔질을 하여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에서의 구강청결중요도는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가 ‘매우 중요’ 33.3%, ‘중요’가 53.6%이었으며, 이성교제 중이 아닌 대상자는 ‘매우 중요’가 12.3%, ‘중요’가 62.3%이었다. 이는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가 구강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평소 칫솔을 휴대하는 등 구강건강관리행동이 올바르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사용, 흡연 유무는 이성교제 유무와 관련 없이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가 더 많았고, 흡연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더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여러 구강관리용품별 사용에서는 일부 대상자만이 구강양치액과 치실을 사용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은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는 ‘매우 많음’이 11.9%, ‘많음’이 33.3%, ‘보통’이 40.5%이었으며, 이성교제 중이 아닌 대상자는 ‘매우 많음’이 9.4%, ‘많음’이 27.4%, ‘보통’이 51.9%이었다. 이성교제 유무에 관계없이 구강건강관심은 ‘보통’이 46.8%로 가장 높았다.

대학생은 자율성과 성인이라는 명목으로 학교구강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임미영, 1998). 따라서 대학생은 성인으로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여 건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잘 관리해야 하며,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행태가 이루어져야 한다(김연화, 2012). 본 연구에서 흡연은 하지 않지만,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은 보통이고, 구강관리용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성교제를 하는 대상자는 구강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평소 칫솔을 휴대하는 대학생들에게 이성교제 여부와 관계없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이고, 다양한 구강관리용품을 설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학생 대상 건강증진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구강진료경험은 이전 연구에서 스케일링의 경험이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에게서 19.4%,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서 9.2%로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나(이경희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치과검진은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가 33.3%,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대상자는 24.5%이었고, 스케일링은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가 46.4

%, 이성교제 중이 아닌 대상자가 34.9 %로 정기적인 치과검진, 스케일링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에게 치석제거 보험 급여화 사업으로 인해, 이성교제 유무에 관계없이 대학생들이 스케일링을 받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 진다. 국민건강보험급여 이후에 스케일링과 치주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3배 이상 늘었다고 보고하였다(김영태 등, 2016).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성교제 유무에 관계없이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받는 대상자는 28.4 %, 스케일링을 받는 대상자는 40.0 %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스케일링 보험 급여화 이후 이에 관해 조사한 선행연구가 다수 있었지만, 2015년에 조사한 연구에서 스케일링 보험 급여화 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2.4 %에 불과하였다(허미영, 2015).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케일링 보험 급여화 사업에 대해 보다 잘 알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대학생들에게도 스케일링 급여화 사업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스케일링을 통해 구강건강을 보다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사고는 이성교제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구강건강이 '보통이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57.4 %로 가장 많았으며, 흡연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은 80.5 %, 구취에 대한 고민은 33.7 %이었다. 또한, 구취고민은 이성교제에 관계없이 여자에게서 45.0 %로 남자 17.7 %보다 높았다. 이전 연구에서는 구취가 있는 대학생은 남자 33.1 %, 여자 26.4 %로 본 연구에서와 반대되는 수치이었다(조영식 등, 2012). 또한, 구취를 인식하게 된 계기는 여자 82.4 %, 남자 68.1 %가 스스로 인식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개인의 이미지를 더 중요시 여기며, 스스로의 외모에 관심이 더욱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진다. 구취는 사회적 부담과 통증이 없는 부수적인 증상으로 과소평가되기 쉽다. 하지만, 구취를 경험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혹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구취는 잇솔질, 치실, 혀클리너 사용 등 기본적인 구강관리만으로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구취감소를 위한 구강건강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성교제 여부와 구강건강관리행동을 조사하여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성교제 여부가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구강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시행하였다. 일부 지역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모집단을 대표하는데 한계점이 있었고,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성과의 교제기간, 스킨십 정도와 횟수, 교제 방식, 구강 건강교육에 대한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제방식이나 스킨십 정도와 횟수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이성교제 중인 대상자가 외출 직전 잇솔질을 하고, 칫솔을 휴대하는 등의 구강건강관리행동이 올바르게 형성되었다는 점과 구강 청결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성교제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V. 결 론

대학생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이성교제 여부가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성교제 여부가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이성교제 중인 사람이 외출 직전 잇솔질을 하거나, 칫솔을 휴대하는 등 일부 구강건강관리행동이 올바르게 형성되었고, 구강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2.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정기적인 치과검진, 스케일링, 구강관리용품 사용 및 흡연 여부,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구취에 대한 고민 등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본 연구가 이성과의 교제기간, 스킨십 정도와 횟수, 교제방식, 구강 보건교육에 대한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지역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모집단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요

인들을 고려한 다각적인 연구가 조사지역을 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위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참고문헌

교육재(2007). 대학생의 동아리활동에 따른 여가태도와 학교 생활만족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연화(2012). 울산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학교와 비운영 학교 학생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361-368.

김영태, 이재홍, 권혜인 등(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DB를 이용한 스케일링 보험급여화 전후 실태 조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54(8), 604-612.

김효정, 남미우(2015). 20-30대 여성의 뷰티 라이프스타일 측정도구 개발. 디자인지식저널지, 34(6), 419-427.

박은희(2015).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한국발달심리학회지, 28(1), 57-79.

박주현(2010).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외모관리 행동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경희, 권현정, 윤혜정(2007). 20대 연령층의 이성교제

여부에 따른 구강위생상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7(2), 177-187.

이선미, 하정은, 김민지(2016).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학교 내 구강건강관리행태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696-702.

이현옥, 김아진(2014).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흡연관련 특성과 구강건강실천분석. 한국치위생과학회지, 14(2), 183-190.

임미영(1998). 한국 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 예측 모형 구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전종국(2008). 외모관리서비스 이용 행동과 만족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기천, 이홍수, 김수남(2003). 앤더슨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구강진료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7(3), 357-373.

정미경(2004).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0(2), 85-98.

조영식, 최하나, 배현숙(2012). 일부 대학생의 구취자각에 따른 건강상태 및 건강행동. 치위생과학회지, 12(4), 443-450.

조은정(2014). 외모, 그 보다 더 멋진 內면의 美. 한국심리학회 소식지, 29(8), 4-6.

허미영(2015). 스케일링 급여화 이후 소비자 인식 변화와 지역별 시행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